

새해를 맞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남은 아쉬움과 미진함을 새 희망과 포부로 대신할 때입니다. 호흡 한번 길게 고르고, 올해 또 씩씩하게 달려보는 겁니다. 2016년을 힘차게 맞는 우리 곁으로 '사람의 눈빛이 제철'인 봄이 부지런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년 엽서

이해인



하늘에서
별뿔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쳐가듯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이해인 작가

지난해 SNS에 위독설이 퍼졌었던 이해인 수녀는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보에 신작시 '사랑의 인사'를 발표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그는 앞으로도 여전히 부산의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원에 머물며 조용한 수도자이자 다정한 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낙서

박준

저도 끝이고 겨울도 끝이다 싶어
무작정 남해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금세 뚝배기를 비웁니다
저를 계속 보아오던 두 사람도
그제야 안심하는 눈빛입니다

거기는 벌써 봄이 와서
농어도 송어도 꽃게도 제철이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입을 닦다 말고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잔뜩 낙서해 놓은 분식집 벽면에

혼자 회를 먹을 수는 없고
저는 밥집을 찾다
근처 여고 앞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봄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이라고
조그맣게 적어놓았습니다

몸의 왼편은 겨울 같고
몸의 오른편은 봄 같던 아픈 여자와
늙은 남자가 빈 테이블을 지키고 있는 집

메뉴를 한참 보다가
김치찌개를 시킵니다

여자는 냄비에 물을 올리는 남자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저도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봅니다

남자는 돼지비계며 김치며 양파를 썰어 넣다 말고
여자와 말다툼을 합니다

조미료를 더 넣으라는 여자의 말과
많이 넣으면 느끼해서 못 쓴다는 남자의 말이 끊어 넘칩니다



몇 번을 더 버티다
성화에 못 이긴 남자는
조미료 통을 닫았고요



박준 작가

박준 시인은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여 2012년에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첫 시집을 펴냈다. "촌스럽더라도 작고 소외된 것을 이야기하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그는 "엄숙주의에서 해방된 세대의 가능성은 시에서도 무한하다고 봐요"라고 말했다.